

국 제 수 산 월 간 동 향

2025. 9.



한국원양산업협회

KOFCC 해 외 수 산 협 력 센 터

목 차

1. 기후변화가 공유 어족 관리에 도전 과제 불러온다는 연구..... 3
2. 위기종 상어 고기, 미국 슈퍼마켓 유통 확인..... 4
3. ‘마일 201’ 고해역, 무규제 오징어 어업 속
인권 · 환경 위기 심화..... 5
4. 일본에서 세계 최초로 태평양 꽁치 양식 성공..... 6
5. 지정학적 긴장으로 재편되는 글로벌 수산물 무역..... 8

- 기후변화로 주요 어종이 EEZ(배타적 경제수역)와 공해, RFMO* 사이로 분포를 바꾸면서, 공유 어족 자원의 국제적 관리와 쿼터 협상이 훨씬 복잡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연구 결과 발표

*RFMO: 지역수산물관리기구(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

- 기후변화에 따라 2050년까지 대부분의 주요 상업 어종이 EEZ와 공해, RFMO 경계를 넘나들며 분포가 변화할 것으로 예측됨
- 이러한 변화는 공유 어족 자원의 관리, 할당, 감시 및 평가 체계에 새로운 도전을 가져오며, 특히 기존의 국제 협력 테이블(예: RFMO 회의, 연안국 간 협상)에서 동적 대응 구조가 절실하게 요구됨
- 일부 어족(예: 연어·빙어류)을 제외한 거의 모든 상업 어종이 분포 변화를 겪을 전망이며, 이미 대서양 북동부 등지에서는 이러한 공유 자원 관리 위기로 인해 MSC* 인증 박탈 등 실제적 결과가 나타나고 있음

*MSC: 해양관리협의회(Marine Stewardship Council)

- 연구진은 기후 변화가 가져올 어족 분포 이동의 규모가 예측보다 더 커질 수 있음을 강조하며, 각국과 RFMO가 동적 자원 평가, 적응적 관리, 강화된 국제 협력을 통합해 지속가능하고 형평성 있는 관리 체제로 전환해야 함을 촉구함

※ 출처: SeafoodSource¹⁾

1)<https://www.seafoodsource.com/news/environment-sustainability/study-reinforces-climate-change-is-causing-challenges-for-fish-stocks-shared-between-countries> ('25년 09월 24일 검색)

- 미국 슈퍼마켓과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상어 고기 중 상당수가 멸종위기 등급 상어종이었음에도 대부분 '상어' 등 모호한 라벨로 불법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 보호와 보존 정책의 위기를 드러냈다는 연구 결과 발표
- 29점 상어 고기 샘플 중 31%가 멸종위기·위기종 상어였으며, 거의 모든 상품(93%)이 단순히 'shark' 등으로 모호하게 표기되어 실제 종 구분이 어려웠음
 - 홍살귀상어, 큰귀상어, 숲상어, 솟핀 매코 청상아리상어 등 흔히 볼 수 없는 위기종이 실제로 유통되고 있음이 DNA 분석으로 밝혀졌음
 - 상어 고기는 전 세계적으로 'rock salmon', 'flake', 'cação' 등 다양한 속칭으로 불리며, 소비자는 실제 구입 종을 알기 어렵고, 일부 제품은 허위 표기(예: 블랙팁 상어라고 표기했으나 실제로는 솟핀 매코 상어)로 판매되기도 했음
 - 이들 상어는 고농도 수은 등 유해 중금속을 함유할 가능성이 높아 건강상 위험이 있으며, 종 구분 불명확으로 멸종위기종 국제 거래 규제(CITES) 회피 및 집계·관리에도 차질을 초래함

※ 출처: SeafoodSource²⁾

²⁾<https://www.seafoodsource.com/news/environment-sustainability/study-finds-critically-endangered-shark-meat-being-sold-in-u-s-grocery-stores> ('25년 09월 24일 검색)

- 국제환경단체 EJF(Environmental Justice Foundation, 환경정의재단) 의 최신 조사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EEZ에 근접한 ‘마일 201(Mile 201)’ 고해역에서 조업하는 외국 원양오징어 채낚기선단이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과 심각한 인권 침해를 동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EJF는 위성자료, 현장조사, 선원 여권 및 계약서 분석, 약 200명의 선원 인터뷰를 통해 조사함
 - 중국 선박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선단이 수개월간 해상에 머무르며 조업하면서 노동권 침해와 학대가 구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음
 - 조사에서는 구타, 과도한 장시간 노동, 임금 체불, 식량 부족 등이 확인됐으며, 한 선원은 냉동고에서 18시간 연속 노동 후 동상으로 손가락 절단을 겪은 사례도 보고되었음
 - 선원들이 영양실조에 시달리며 괴혈병 증세를 보이는 등 건강 문제도 심각했다. 아울러 선박에서는 상어 지느러미, 바닷새, 물개, 바다거북 등 보호종을 불법 포획·거래하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음
 - EJF는 오징어 자원이 단기간에도 붕괴될 수 있는 취약종이라는 점에서 환경적·사회적 위험이 동시에 고조되고 있다며, 투명성 강화와 국제적 규제 마련, 그리고 소비국의 수입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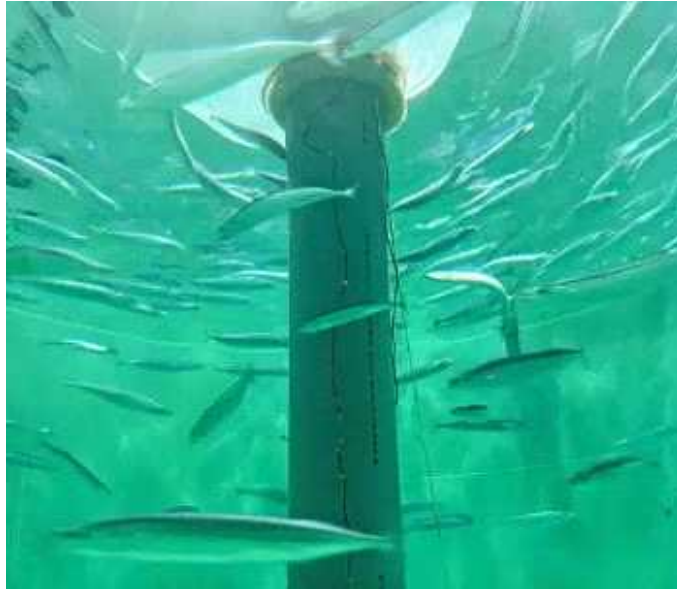
※ 출처: SeafoodSource³⁾

³⁾<https://www.seafoodsource.com/news/environment-sustainability/-these-aren-t-isolated-events-ejf-identifies-strong-link-between-illegal-fishing-and-human-rights-abuses-environmental-crimes>

- 주요 식품 회사 마루하 니치로와 후쿠시마 해양 과학 박물관인 아쿠아마린 후쿠시마의 협력으로 상업적인 수준의 태평양 콩치 양식 실험이 성공하였음. 콩치는 연약한 비늘과 고도로 긴장된 특성으로 인해 양식이 어려운 것으로 악명 높기 때문에 이번 성과는 업계에 중요한 소식임.
- 이 프로젝트는 아쿠아마린 후쿠시마의 오랜 전문성에서 탄생하였음. 1998년부터 수조에서 콩치를 성공적으로 사육해 온 아쿠아리움은 최대 8세대에 걸쳐 이 성공을 이어오고 있음. 이러한 경험은 마루하 니치로에게 매우 귀중한 것임. 두 기관은 2021년 10월에 실험을 시작하였으며, 아쿠아마린 후쿠시마는 온도 조절, 먹이 공급 및 생태 연구에 대한 전문 지식을 제공하였음.
- 이 협력 연구는 두 가지 주요 이정표로 이어졌습니다: 1) 2022년 6월, 연구팀은 콩치를 100g 이상의 시장성 있는 크기로 성공적으로 끌어올렸음. 2) 불과 두 달 후, 그들은 성공적인 인공 수정을 달성하였음.
- 아쿠아마린 후쿠시마의 큐레이터이자 콩치 사육 프로젝트 리더인 야마우치 신야(51)는 자신의 팀이 20년 넘게 진행한 연구가 마침내 사회에 기여할 수 있었다고 말하며 안도감과 기쁨을 나타냈음.

■ 콩치 산업의 위기 해결

- 태평양 콩치는 최근 몇 년 동안 어획량이 급감하였음. 일본 콩치봉수망 어업협동조합에 따르면 2010년 193,425톤이었던 총 어획량은 2012년에는 38,695톤으로 감소했음. 이러한 희소성으로 인해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여 한때 흔했던 생선이 명품으로 변했음. 마루하 니치로는 도매 가격이 2008년 kg당 65엔에서 2021년 621엔으로 거의 10배 가까이 상승했다고 보고했음.
- 이러한 쇠퇴에 대응하기 위해 마루하 니치로는 2020년 가고시마현 미나미사쓰마시에 양식 기술 개발 센터를 설립하였음. 센터는 참다랑어, 방어 어류에 집중해 왔지만, 콩치 양식 성공으로 안정적인 공급의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었음.



개발 센터의 육상 탱크에서 양식 실험되고 있는 태평양 공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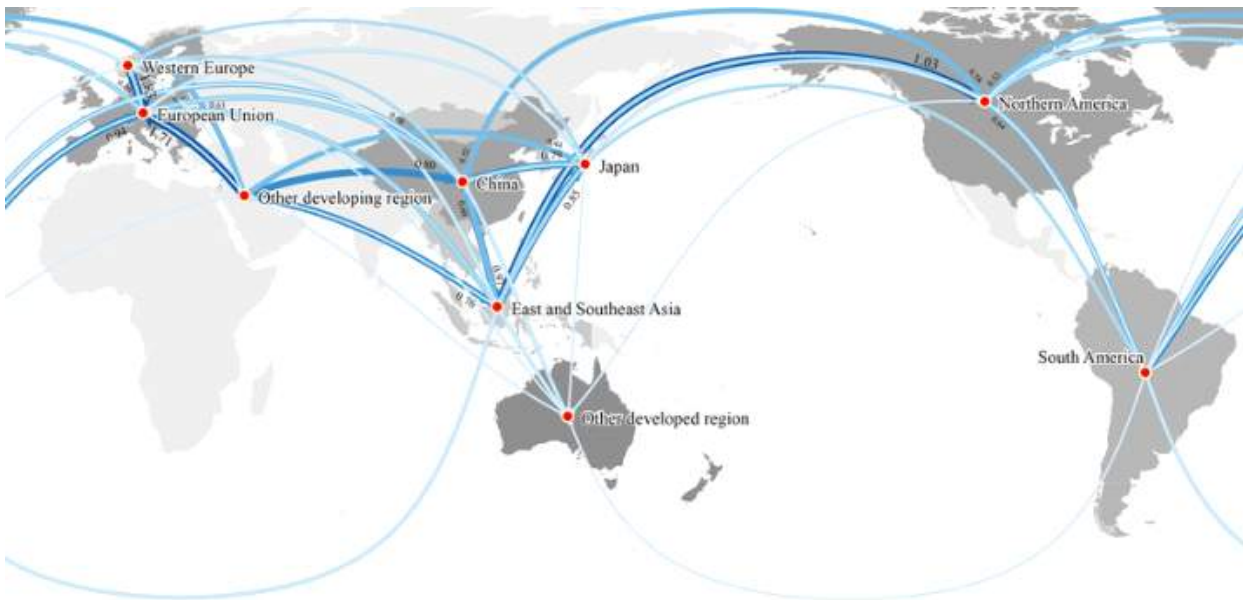
- 두 회사는 이 성과를 특히 후쿠시마와 이와키에서 널리 알리기를 희망하며, 가능한 한 빨리 신선한 양식 공치를 식탁에 올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

출처: www.seafood.media⁴⁾

4) <https://www.seafood.media/fis/worldnews/worldnews.asp?l=e&id=135751&ndb=1> (9월 11일 기사)

■ 관세와 제재로 인한 수산물 시장 불안정성과 가격 상승

- 네덜란드 기반 금융기관인 라보뱅크의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지정학적 긴장 고조와 무역 분쟁으로 인해 공급망이 혼란에 빠지면서 글로벌 수산물 산업은 심각한 불안정의 시기를 겪고 있음. 라보뱅크는 주요 수산물 제품에 대한 관세와 제재가 무역 흐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전 세계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시장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하였음.



글로벌 수산물 무역 흐름 (데이터는 FAO에서 제공)

이미지 출처: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Communications

- "해류에 휘말리다: 지정학이 전 세계 수산물 산업을 위협하다"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미국을 이러한 혼란의 핵심 동력으로 지목하고 있음. 특히 가치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는 수산물 제품인 새우 부문이 큰 타격을 입었다고 지적함. 미국은 특정 새우 수입품에 대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는 아시아 국가를 겨냥한 조치임. 그 결과 수출업체들은 대량의 물량을 다른 시장으로 이전해야 했고, 이는 전 세계적으로 공급 과잉과 급격한 가격 변동으로 이어졌음.

■ 주요 수산물 품목 전반에 걸친 영향

- 연어: 생산 주기가 길고 신선한 배송에 의존하는 이 고가 어종은 무역 조치에 매우 취약함. 라보뱅크는 캐나다 연어 수출의 87%가 미국으로 수출되기 때문에 캐나다 연어에 대한 미국의 새로운 관세가 시장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음. 이러한 불확실성은 이미 신규 투자를 둔화시키고 있으며 세계 최대 수산물 시장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과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
- 민물고기: 틸라피아와 팡가시우스 같은 종의 거래도 압박을 받고 있음. 미국 시장에서 중국산 틸라피아에 75%의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의 주요 공급원 중 하나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음. 이로 인해 미국의 틸라피아 소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 수출업체들은 공급 과잉과 해당 지역의 가격 하락을 감수하고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 시장으로 제품을 이전할 수 있음.
- 저서류: 러시아산 생선에 대한 제재로 인해 저서류 시장에 상당한 부담이 생겼음. 보고서는 이러한 조치로 인해 국제 공급량이 줄어들었고, 유럽 시장의 가격이 상승하는 동시에 아시아에서 수리미가 과잉 생산되어 생산자들에게 추가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함.
- 라보뱅크는 전체 수산물 부문이 장기적인 불안정 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인 투자를 제한하고 전략적 계획을 방해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음. 특히 새우와 민물고기 부문의 아시아 생산자들이 혼란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국 소비자들은 소매 가격 상승과 제품 선택권 감소에 직면해 있음.
- 이에 대해 라보뱅크는 기업들에게 공급원 및 판매 채널의 다각화를 우선시할 것을 권고하였음. 수산물과 같이 비용에 민감한 부문에서는 이러한 전략이 어렵지만, 내수 시장의 강세는 어느 정도 안도감을 줄 수 있음. 그러나 현재 지정학적 요인이 수산물 무역의 미래를 형성하는 데 전례 없는 역할을 하고 있는 등 전반적인 전망은 여전히 매우 불확실함.

출처: www.seafood.media⁵⁾

5) <https://www.seafood.media/fis/worldnews/worldnews.asp?l=e&id=135721&ndb=1> (9월 9일 기사)